

인왕산 초소책방

자락길 위 동네 책방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진숙

공명건축사사무소 대표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산3-1번지 일대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공 관리소)
대지면적	31,980m ²
건축면적	194,73m ²
연면적	324,52m ²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높이	7.57m
건폐율	0.61%
용적률	0.98%
구조	철골구조: 탄소섬유내진보강
시공	(주)고덕종합건설
설계기간	2018. 12. 6.
시공	착공: 2019. 7. 22., 준공: 2020. 5. 3.
공사비	약 11억 원
사업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 초소책방 서측 전경

1968년 무장공비 김신조의 침투 이후 인왕산에는
청와대 방호를 목적으로 건물이 하나 지어졌다.
시간이 흘러 목적을 잃은 건물은 철거의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지만, 책방으로 변신해 지나다니는
이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경찰병력이 주둔하며
보초를 섰기에 이곳의 이름은 초소(哨所).
이 이름 속에는 지난날의 기억들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인왕산 초소책방으로 들어가는 길





© 김용수



© 김용수

상 책방 내부에서 보이는 자연 풍경
하 남동측 전경



상·좌 새롭게 조성한 외부데크
 상·우 2층 외부데크에서 바라본 인왕산 초소책방
 하 전면유리로 개방성을 높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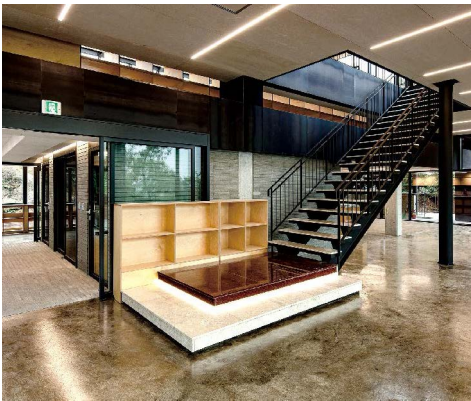


2층 커뮤니티 공간

©김영순



©김영순



©김영순



상 2층 동측 전경
 하·좌 내부 계단
 하·우 1층 내부 주방

인왕산 초소책방은 기존의 건물을 구조를 살리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구조재료인 강구조를 모두 노출하였다. 이렇게 철골의 구조미를 강조하면서도 벽체를 투명한 유리로 사용하여 가볍게 보이도록 하였다. 기존 건물의 흔적은 외부 조경으로 활용하여 기억과 흔적을 모두 간직한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켰다.



© 인왕산

동쪽에서 바라본 인왕산 초소책방의 야경

청와대 방호용 경찰 건물을 시민에게

인왕산 초소책방의 기반이 된 기존 건물은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 김신조의 침투 이후 청와대 방호 목적을 위해 인왕산 자락길에 경찰병력이 주둔하는 용도(인왕CP)로 건축되어 50년간 쓰였으나, 청와대의 인왕산 지역 전면 개방계획에 따라 방호담당 경찰 인력의 축소 및 이전으로 철거가 예정된 건물이었다. 하지만 경찰 건물 주변은 산세가 수려하고 전망이 양호하여 시민들에게 숲속의 새로운 휴식 공간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청와대의 의견에 따라 서울시와 종로구(공원녹지과, 건축과), 서울지방경찰서 간의 무상양여협약을 통해 건물 활용이 가능한 여건을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대통령경호처·수도방위사령부·서울지방경찰청 등 청와대의 방호목적 기관과 서울특별시(공원녹지정책과)·종로구(공원녹지과, 건축과)·공공건축가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비공개 방호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제공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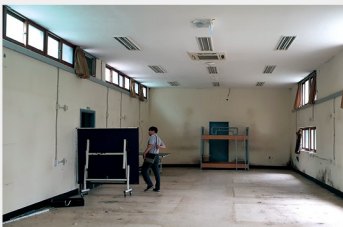
2018년 9월에서 12월에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도시공간개선단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기획단계를 거쳐 필자(서울시 공공건축가 이충기)에게 설계 재능기부를 요청해 와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다. 2018년 12월에서 2019년 5월까지 약 6개월간의 구조안전진단을 포함한 리모델링 설계 과정을 거쳐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시민들을 위한 인왕산 숲속 새로운 쉼터와 조망의 공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인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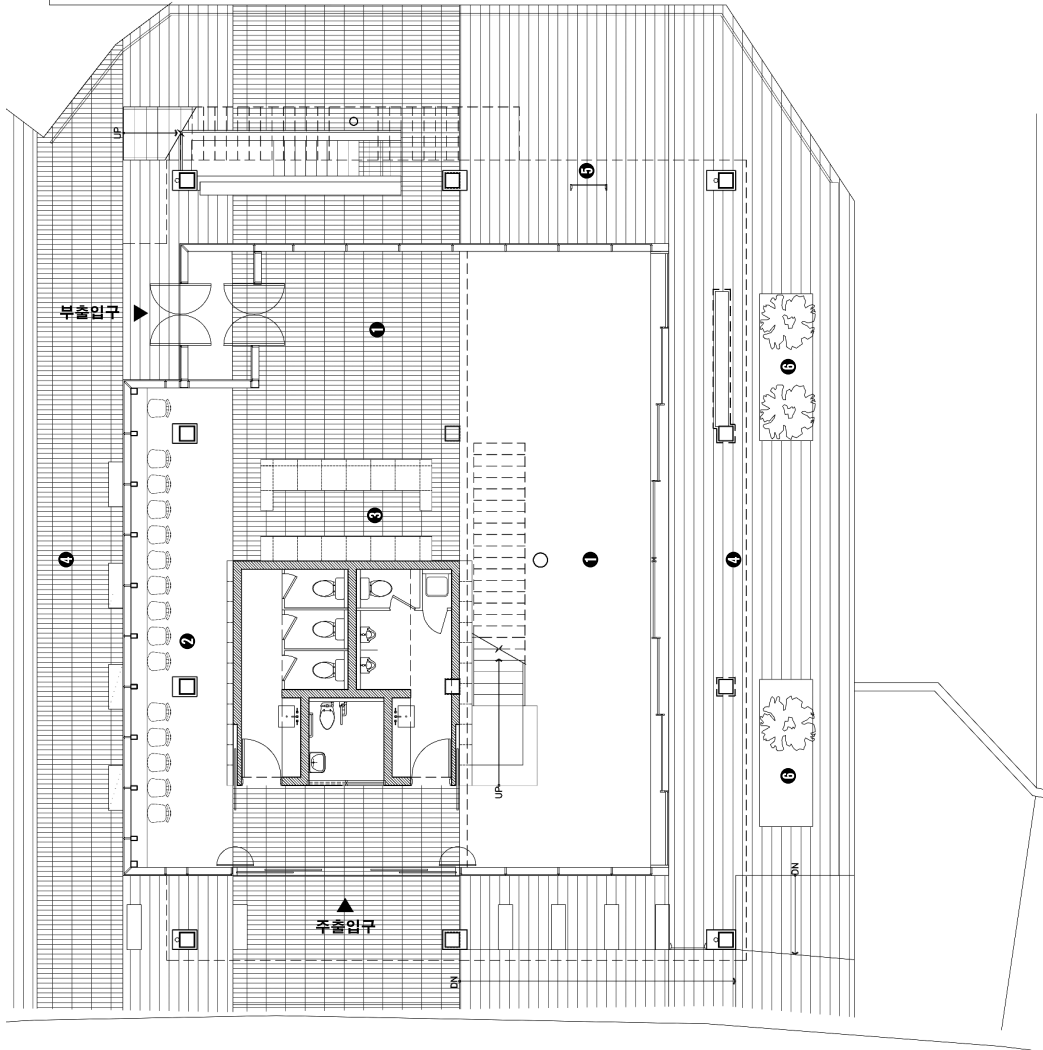
상 인왕산 초소책방 서측 전경
하 남동측 전경

©이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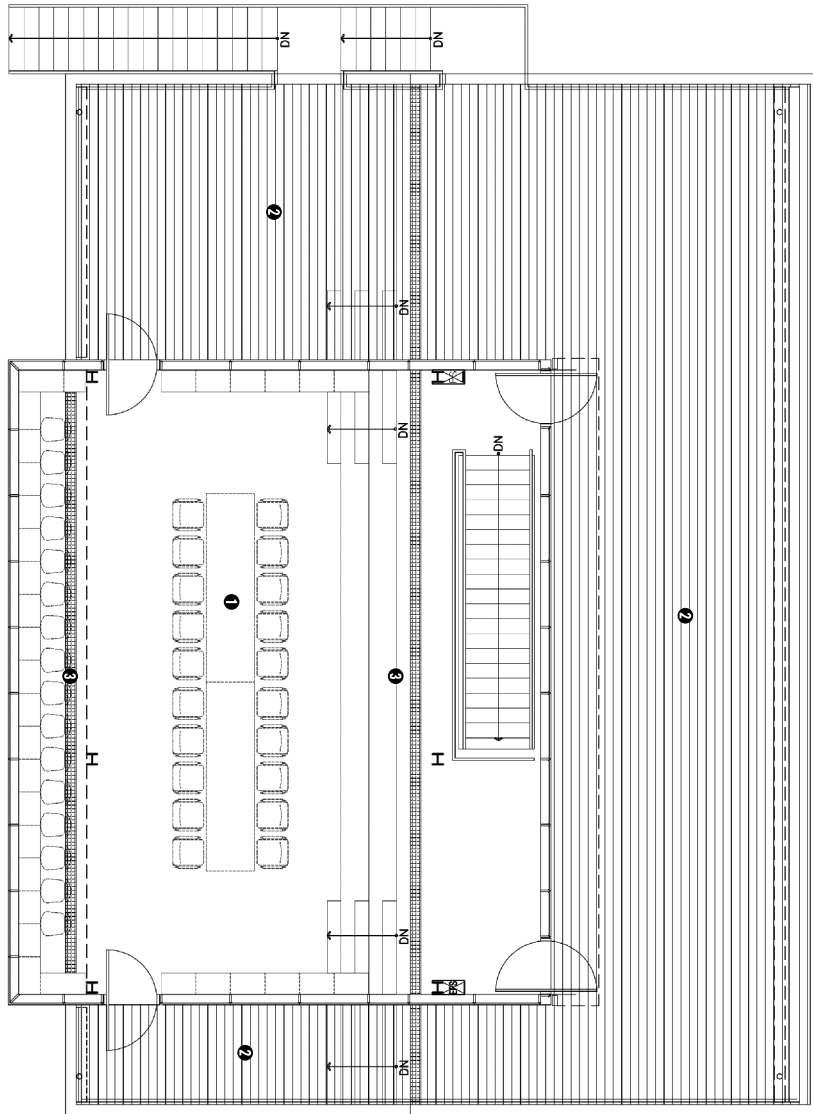


리모델링 전 내외부 공간

- ❶ 커뮤니티 공간 1
- ❷ 커뮤니티 공간 2
- ❸ 주방
- ❹ 외부데크
- ❺ 기존 철문 활용
- ❻ 기존 수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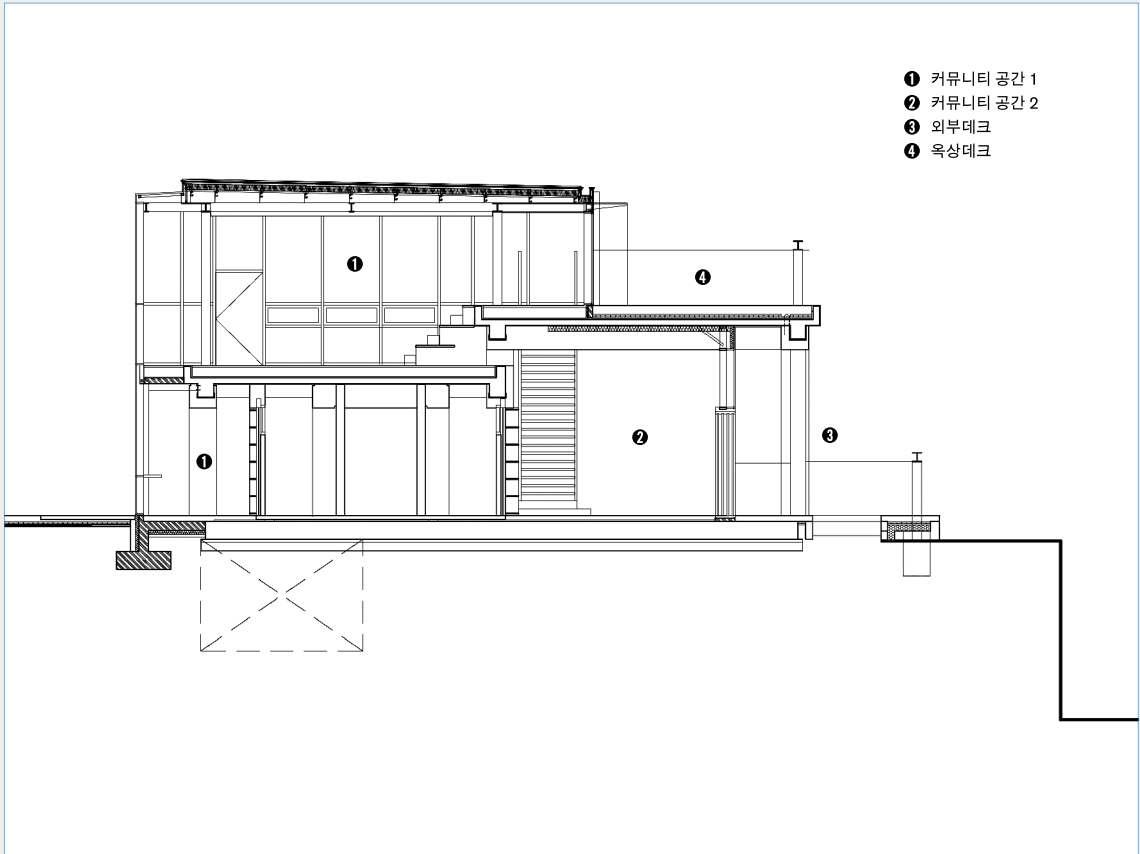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❶ 커뮤니티 공간 1
- ❷ 옥상데크
- ❸ 기존 파라

2층 평면도



종단면도

새로운 기능과 공간- 기억과 흔적을 위한 장치

경찰 건물(인왕CP) 증축 및 리모델링은 과거 폐쇄적으로 운영된 경찰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고, 주변의 훼손된 자연경관을 되살리며, 자연과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기존 건물은 1층이지만 2개의 층고를 가진 건물로, 이를 활용하여 낮은 쪽 옥상부분을 2층으로 증축하여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높은 부분을 전망대로 사용하도록 리모델링하였다.

이와 함께 인왕산스카이웨이를 산책하는 볼특정 공원 이용객들과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개방적 공간을 구성하였고, 특히 인왕산 자락길에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과 양질의 휴게공간을 계획하였

다. 아울러 주변에 조성되었던 기존 콘크리트 등의 인공시설물을 철거하고 훼손되었던 바위와 수목 등의 자연을 복원하였다.

리모델링 설계는 주변 수목과 바위가 이루고 있는 경관이 실내공간으로 흐르도록 유리를 사용하여 외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1층에 폭 15.48m에 높이 3.4m의 슬라이딩 도어를 두어 개방 시 내부에서도 자연의 바람과 경관을 느끼도록 하였고, 2층도 2개의 층고를 이용하여 도시경관과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설계하였다.

또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일부는 증축하고 일부는 데크 면적을 넓게 확장하기 위해 기존 벽체보다 후퇴하여 필로티를 만들어 태양과 비를 가릴 수 있는 처마공간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기존 건물의 외벽 시멘트벽돌과 출입문을 일부 보존하여 시선을 차단하거나 벤치로 활용하여 기존 건물에 대한 기억과 흔적의 장치로 계획하였다. 기존 경찰 건물로 운영할 때 사용하던 기름탱크 역시 보존하여 외부 조경요소 및 풍경이 되도록 하였다.

외부는 산책하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휴식하며 경치를 조망토록 친근감 있는 목재 데크로 조성하고 H빔을 이용한 의자를 계획하였으며,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보도와 건축물 출입의 단차가 없도록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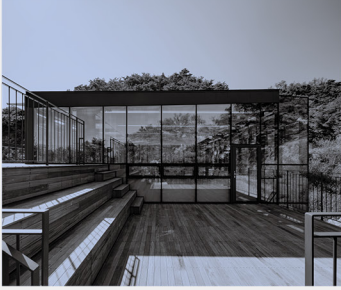
증축부의 철골구조와 구조미

기존 건물은 콘크리트 가구식 구조로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외벽은 시멘트벽돌과 플라스틱 판재로 마감된 건물이었다. 이에 리모델링은 외부 벽체와 내부 칸막이벽은 모두 철거하고, 기둥·보·슬래브는 보존하되 탄소섬유로 보강하여 내진 성능을 확보하였으며, 증축 부분은 강구조를 채택하여 설계하였다.

이번 리모델링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증축한 부분의 구조재료인 강구조를 모두 노출하여 기존의 RC 구조와 구분되도록 철골의 구조미를 강조한 점이다. 증축 부분은 모두 H빔과 구조용 각관을 사용하여 시공성과 경량화를 도모하였으며, 벽체는 투명한 유리로 계획하여 가볍게 보이도록 하였다. 2.3m의 낮은 층고와 그로 인한 기계설비와의 간섭, 전면 유리 시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증축 부분의 철골구조와 기존 구조의 내진보강 탄소섬유 보강재를 모두 노출하여 구조미를 강조하였다. 이는 개방감을 높이는 효과로도 작



상 책방 내부에서 보이는 자연 풍경
중 1층 내부 주방
하 2층 커뮤니티 공간



상 전면유리로 개방성을 높인 모습
중 2층 동측 전경
하 2층 외부데크에서 바라본 초소책방

용하였다. 특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내부와 외부 두 곳에 모두 철골로 설치하였다. 내부 계단은 기존 슬래브를 오픈하고 철골조 계단의 구조미가 드러나도록 대리석 상판을 얹어 디자인하였으며, 천정의 경우 천장재와 H빔 사이를 띄우고 그 사이에 간접조명을 넣어 철골구조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1층 남쪽의 벤치와 2층 데크의 난간 상부를 H빔으로 디자인하여 철골구조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건축 시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로 대형 건축물에서 철골조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신축공급이 거의 끝난 서울시 등 대도시의 경우 향후 소형 건축물의 증축, 리모델링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시공성, 시간 단축, 경량화, 건식·조립식 구조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강구조 사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100m²(30평) 규모의 증축이나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향후 소형 건물 리모델링 시장의 강구조 사용 확대에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